

고령자 자원봉사와 우리나라의 선택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원봉사는 일이다. 비록 ‘봉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volunteering’ 또는 ‘volunteer work’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일의 한 종류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일처럼, 자원봉사 또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선택(자유의지 혹은 의무), 보상(없음 혹은 수당), 구조(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수혜자(타인 혹은 자신) 등의 기준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더해 자원봉사는 각 사회단위마다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 또는 발전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의 경우만을 살펴보더라도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의 경우처럼 성인의 40% 이상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같이 그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연령의 분포도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말하자면, 자원봉사는 그 형태부터 내용까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에서 다루는 기획특집 주제인 ‘고령자 자원봉사’ 역시 각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역사적 경로가 달라 이들 사례를 우리나라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들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적 선택에 있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령자의 삶, 안녕, 여가 등의 중요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 다른 국가의 고령자 자원봉사 사례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확인하

여 긍정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먼저, 소개된 세 국가 사례는 고령자 자원봉사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고령자 자원봉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접근방식이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국가지원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현 시점에서 전무한 상황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 고령자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국가마다 다른 전개 양상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개입 확대의 필요성 등 다양한 논점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사례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고령자에 제공되는 수당,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각국 사례를 통해 자원봉사라는 형식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상당수의 사례 및 고령자 자원봉사자 근로자성과 관련한 법적 논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진행하는 상당수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일정 부분 보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유급 자원봉사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이 유급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유무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한 차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외국 사례는 노인활동지원사업 등 우리나라 유사 제도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이들 참여자를 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또 이들을 어떤 기준에서 취업자와 구분해야 하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정할지 등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

덧붙여 이들 사례는 은퇴시기의 변화와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의 RSVP 프로그램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자 자원봉사는 은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011년 근로자 법정 정년 폐지로 고령자의 자원봉사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역시 2013년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 정년이 65세까지 증가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양적 변화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이 연장되게 되었는데, 관련해 이들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자 자원봉사가 어떤 형태로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점을 제시해준다.

고령자 자원봉사는 대체로 높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고령자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고령자 측면에서 개인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측면에서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실재한다면, 우리나라 정책이해당사자들은 소개된 국가 사례에서 인식된 문제의식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에 있어 언급한 고령자 개인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증진이라는 두 기준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안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LI**

참고문헌

- Cnann, R. A., Handy, F., Wadsworth, M.(1996), “Defining Who Is a Volunteer: Conceptu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5(3), pp.364–383.
- GHK(2010), *Volunteering in the European Union: Final report*, London: GHK.
- Morrow–Howell, N.(2010), “Volunteering in Later Life: Research Fronti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5B(4), pp.461–469.
- www.oxforddictionaries.com